

신곡의 지옥편에 나타난 그림자와 악

김 덕 규*

국문초록

본 연구는 격변의 시기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동시대 사건의 그림자와 악의 문제를 《신곡》의 지옥편을 통하여 조명한 것이다. 먼저 그림자와 악을 분석 심리학적으로 간략히 정리하고, 이 그림자의 개념은 정신치료 현장에서 상대성과 윤리성이라는 경험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단테의 시대인 14세기는 중세의 끝을 넘어 르네상스의 배아기였고, 신곡을 집필하던 단테는 강압적으로 페르조나가 벗겨지고, 망명생활을 하던 때였다. 한 마디로 개인과 집단의 전환기였다. 어두운 숲은 이 전환기에서 만나는 니그레도, 어둠과 혼돈이지만 변환과 재생의 터라 할 수 있다. 그 숲에서 만난 세 짐승들(표범, 사자, 암늑대)은 단테가 무시하고 소외시킨 본능상이자 중세 기독교 세계가 억압하고 제거해왔던 본능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집단적인 차원에서 파괴적인 본능상으로서 사나운 짐승들은 위기가 지배적인 법칙을 무너뜨릴 때 사회 전반에 배회한다.

지옥의 세 짐승들은 그림자와 악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표범의 측면은 탐욕의 상징으로 케르베루스와 치아코(돼지)를, 사자는 폭력적인 열정의 형태로 파리나타를 탐색하였다. 암늑대의 측면은 선함 뒤에 감추어진 야수성을 지닌 사기적인 괴물, 게리온과 얼어붙은 코키토스의 호수에 있는 거인들과 국가와 가족을 배신하여 살해한 브란카 도리아를 살펴보았다. 지옥은 자신의 내면에 숨어 있는 악에게 굴복하고 먹잇감으로 전락할 때 간혀버리는 ‘상태’임을 드러낸다.

중심 단어 : 그림자; 악; 신곡; 지옥; 표범; 사자; 암늑대.

접수일 : 2022년 9월 5일 / 심사완료 : 2022년 11월 7일 / 게재확정일 : 2022년 12월 12일

*융심리학 연구소 심리치료센터

Address for correspondence: Dukkyu Kim, Th.M., The Center for Jungian Psychology, 482 Ogeum-ro, Songpa-gu, Seoul 05772, Korea

Tel: +82-2-3412-1693, E-mail: k-dukkyu@hanmail.net

들어가는 말

우리는 격변의 시기 한복판에 있다. 코로나의 대유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적 삶이 제한되었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류는 속수무책으로 죽음으로 내몰렸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혼돈의 도가니에서 점차 일상을 회복하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을 때, 블라드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경계인 돈바스를 점령하기 위해 무차별적 폭격을 가했고, 여전히 전쟁의 포성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희생자들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셀 수 없는 난민(최소 570만명 이상)¹⁾이 발생하였다. 코로나의 문화적 대재난²⁾을 지나면서, 세계 각국은 경제적 재건을 위해 자국 우선주의를 더욱 더 표방하고, 국가 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 밖에 없다. 이런 혼란 중에, 군중 심리를 무의식적으로 투사받은 전체적 지도자는 전쟁을 불사하면서 “새로운 질서와 통합”이라는 가치를 들고 있다. 무질서의 주범은 상대국이며, 병리적인 지도자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억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탐욕은 러시아 지도자를 향한 83%의 절대적 지지를 보내며, 참혹한 전쟁이 자행되고 있다.³⁾ 이는 20세기 초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드러난 역사적 현상과 유사하다.⁴⁾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을 통하여 평화와 안보를 위한 명목으로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군사정책과 군비를 강화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은 어떠한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기 가운데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사회와 정치 전반에 분열이 첨예하게 일어났다. 지금 필자는 정치적, 사회적, 의료적 입장에서 이런 문제

1) 2022년 5월 한 신문 보도에 의하면, 2월 24일 침공 후에 최소 1,200만명이 집을 떠났고, 최소 570만명 이상이 난민 신세가 되었다.

2) 한국분석심리학회 2021년 용 서거 70주년 기념 강좌, “재난 중”이라는 한수엘리 에터(Hansueli Etter) 박사의 강연을 참고하라.

3) 전쟁 전에 63%에서 전쟁 후에 83%의 지지율이 상승했다. 중앙일보 5월 8일자 온라인 기고문 [후후월드]에서

4) 용은 “히틀러가 ‘새로운 질서’의 대표자였으며, 이것이 독일인 모두가 그에게 빠진 이유이며, 히틀러는 모든 인간의 열등함에 대한 놀라운 의인화였다. 또한 완전히 무능하고, 적응 안 되고, 무책임하고, 정신병적 성격이었고, 공허하고 유치한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쥐 같은 예리한 직관으로 저주를 받았고, 모든 사람의 인격의 열등한 부분인 그림자를 압도적으로 표현했고, 이것이 독일인 그에게 반한 이유였다”고 한다.

Jung CG (1970): *Civilization in Transition*, CW 10,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454.

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치료자(융학과 분석가)로서 정신 치료적 입장에서 제기하는 집단적 현상의 심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대다수 피분석자들은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는 꿈을 꾸었다. 필자도 두 차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코로나에 감염될 것을 우려하는 꿈을 꾸었다. 최근 한국에서 정치적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피분석자들의 몇몇은 정치 지도자와 그 아내에 대한 꿈을 꾸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동시성적으로 노르웨이에 살고 있는 한 여성⁵⁾은 다음과 같은 꿈을 꾸고, 세계의 정세에 대하여 고민하며 두려워했다.

나는 지구 위를 맴돌고 있었고, 비록 극소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우주에서 자신의 눈으로 지구를 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위성 사진과 관련이 있듯이, 지구를 둥근 공처럼 볼 수 있었다. 나는 세상을 볼 수 있었고 남아메리카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었지만, 지켜보는 동안 대륙판이 서로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볼 수 있는 땅 전체에 걸쳐 대지진과 화산이 폭발했고 땅덩어리가 서로 멀어지고 있었다.

이 꿈은 개인의 심리 안에서 일어나는 집단적 무의식의 요동과 분출일 수 있다. 그러나 꿈꾼 이의 정신적 수준에서 볼 때 개인적 의식의 붕괴를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집단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체 의식 세계를 뚫고 올라오는 집단적 무의식의 분출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한 집단적 의식 세계의 붕괴 현상들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내담자들 중에는 유사하게 세계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서 대피해야 하는 꿈들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꿈들은 집단적 현상이 얼마나 한 개인의 정신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외부세계의 사건의 폭풍은 단지 외부에만 일어나지 않고, 환자의 무의식에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직한 정신치료자라면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주목하고 이해해야만 한다. C.G. 융은 <동시대의 사건에 관한 에세이들>에 대한 서언에서 “그(정신과 의사 혹은 정신치료자)는 환자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 소란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다면, … 환자의 고통은

5) 이 꿈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한수엘리 에터 박사의 딸, 솔베이그(Solveig)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귀로나 이해로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 그를 도울 수 없다”⁶⁾고 말했다. 정신치료자는 정치적 소동과 과장된 선전, 혼돈을 가중시키는 갈등과 긴장으로부터 움츠러들 수 있지만, 동시대의 역사와 마주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융은 위에서 언급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정신병적 증상이 동시대의 정치적 장면보다 더 두드러진 적이 있었던가?”⁷⁾ 우리는 집단적 군중 심리 속에는 원형적 투사가 게재하고 있기에 집단적 현상 속에서 경험되는 방식과 형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집단적 무의식의 교란이 개개인을 신경증이나 심지어 정신병으로 이끌 수 있으며, 집단 전체도 동일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주지해야만 한다.

우리의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던진 일격을 반성하기는커녕 감당할 수 없는 ‘신’으로 의인화된 인간 정신의 힘인 무의식의 악마적 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세기 초반 1차 세계 대전의 유희 사태로 충분히 각성될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희미하게 인식된 현실은 완전히 지워지고, 독일인의 마음에 정복과 영광, 권력 충동이 일어나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다. 이를 가리켜 융은 ‘히스테리적 황혼 상태’라고 불렀고, 국가 전체가 이러한 상태에 빠지면 몽유병자의 확신으로 지붕 꼭대기 위에서 영매의 지도자(히틀러)를 따라가다가 허리가 부러진 채 길바닥으로 떨어질 것⁸⁾이라고 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처한 위기 앞에서 동시대인에게 드리워진 그림자와 악의 현상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개인과 집단에서 떠오르는 그림자와 악에 대한 인식은 한 개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집단의 병리 현상을 개선하고 교정하는데 필수적이다.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자신의 최악의 위협을 알지 못한다면, 개인의 현재와 미래, 집단의 현재와 미래에는 어둠이 드리울 것이다. 따라서 “이 그림자를 의식화하고 다루는 것을 배우는 것은 모든 이에게 할당된 운명이다.”⁹⁾

현시대에 드리워진 그림자와 악의 문제를 14세 초에 쓰여진 단테의 《신곡》¹⁰⁾의 지옥편에서 드러난 그림자와 악의 현상을 통하여 조명하고자 한다.

6) Jung CG (1970): Ibid., CW 10, p177. 융은 2차 세계대전 전과 후에 동시대의 사건에 관한 세 가지 글을 기고하였다. 1936년 “보탄”, 1945년 2차 세계 대전 후에 “대 재앙 후에”, 1946년 11월 3일, 영국방송협회에서 진행된 대담으로 “그림자와의 대결”이 있다.

7) Jung CG (1970): Ibid., CW 10, p178.

8) Jung CG (1970): Ibid., CW 10, para.426.

9) Jung CG (1970): Ibid., CW 10, para.455.

10) 신곡의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은 1304년부터 1320년까지 쓰여졌으며, 단테는 1321년 사망하여 라벤나에서 묻혔다.

중세의 문명이 막을 내리고 르네상스라는 여명이 떠오르길 기다리고 있었던 혼란한 전환기에 쓰여진 《신곡》의 지옥편은 수많은 인간 군상과 어둠의 나라의 형태를 통하여 그림자와 악의 측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그림자와 악에 관한 분석심리학적 개념을 진술하고, 단테의 시대와 지옥편의 전체 구조, 지옥편에 등장하는 세 짐승과 그림자의 특성과 관계, 지옥에 나타나는 그림자와 악의 현상학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자와 악에 관하여¹¹⁾

융 심리학적으로 “그림자는 무의식적 인격의 어떤 측면의 구체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 인격 측면은 자아-콤플렉스에 접속될 수 있지만, 사람에게 따라 각기 다른 이유로 해서 자아-콤플렉스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자아-콤플렉스의 어두운, 살지 못한, 혹은 억압된 측면으로 규정한다.”¹²⁾ “그림자는 열등한 인격, 낡은 인격, 안일한 것들… 무의식의 경계선에 있는 낡은 방식을 의미한다.”¹³⁾ 또한 감추어진, 바람직하지 않은 성질의 총화, 잘 발전되지 못한 기능들이다.¹⁴⁾ 그러나 이러한 그림자에 대한 정의는 부분적으로 맞다. 이 그림자는 단순한 이론이나 몇 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경험을 통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일종의 심리학적 체계화를 위한 도식일 뿐, 실제 정신 치료현장에서 상대성과 윤리성이라는 경험적 측면이 철저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격이 분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억제된 인격의 특성은 의식에 수용되지 못한 채 그림자를 형성한다. 그림자가 개체의 발달과정과 개체를 둘러싼 조건과 환경, 개인의 고유하고 특수한 기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별적인 인간이 경험하는 그림자는 상대적이다. 또한 정신치료 과정에서 그림자를 동화하는 문제는 지적 동의나 이해 그 이상을 요구한다.

11) 그림자와 악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은 이부영 (2000): 《우리 마음 속의 어두운 반려자, 그림자》, 한길사, 서울. Von Franz ML, 이부영, 이광자(역) (2021): 《민담 속의 그림자와 악》, 한국융연구원, 서울. Jung CG (1978): *Aion*, CW 9 ii,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Sanford AJ, 심상영(역) (2003): 《융학과 정신분석가가 본 악》, 심층목회연구원출판부, 강릉. 참고.

12) Von Franz ML, 이부영, 이광자(역) (2021): 《민담 속의 그림자와 악》, 한국융연구원, 서울, p7.

13) Jung CG (1984): *Dream Analys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255.

14) 이부영 (2000): 《우리 마음 속의 어두운 반려자, 그림자》, 한길사, 서울, p75.

그림자를 표현하고, 살아내고, 현실에서 통합하는 과정은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보기 싫고, 열등하고, 무가치한, 심지어 악해 보이는 특성을 의식적으로 살리는 일은 자아가 지금까지 구축했던 원칙과 세계관을 뒤집어야만 하는 대단히 힘겨운 일이다.

30대 후반의 한 남성 피분석자는 자신의 주관적인 원칙과 질서와 법에 대한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고, 옳고 그름을 지나치게 주장한 나머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었고, 부정적이고 옳지 못한 행동하는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 그의 꿈에는 놀랍게도 살인자가 자주 등장하였다. 경찰의 그림자는 도둑이며, 도둑의 그림자는 경찰인 셈이다.

그림자는 개별적인 인간이 전체 인격을 실현(개성화)하기 위한, 전체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관문이다. “그림자는 한편으로 후회스럽고, 비난받아야 하는 약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건강한 본능이고 보다 높은 의식을 위한 전제조건”¹⁵⁾이기도 하며, 미래 인격의 잠재력은 자아의 어두운 부분인 그림자에 속하기¹⁶⁾ 때문에, 완벽하게 통합할 수는 없지만, 긴 협상의 과정을 통하여 인식하고 동화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런 그림자 중에 자아가 동화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 무의식에 있는 상대적인 악의 성질이다.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적 그림자는 엄청난 파괴력과 충격적인 체험을 일으키기에 결코 수용하기 쉽지 않다.¹⁷⁾ 이런 원형적 그림자는 정당, 인종, 이념, 주의, 종교에서 드러나는 집단적 편견에 의해 야기된다. 대개 집단정신과의 동일시는 집단에 특유한 집단적 그림자를 파생시키고, 이는 집단적 투사를 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절대적 악의 투사는 대표적으로 전쟁을 통하여 일어나고, 무자비한 살상을 자행하는 파괴성을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적국은 악마이자 제거해야 할 기생충 같은 벌레로 전락한다.¹⁸⁾ 더 깊은 논의는 위의 각주에서 소개한 글을 참고하고, 이제 그림자와 악의 현상을 신곡의 지옥

15) Jung CG (1978): Ibid., CW 9 ii, para.402.

16) 이부영 (2000): 앞의 책, p79-80.

17) 절대적인 악은 때로는 접촉을 피하는 것으로 그 위험한 파괴력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

18) 선과 악이라는 판단 근거는 자아 중심적인 것과 자기 중심적인 것은 다름을 주지해야 한다. 자아에게는 주관적인 유희리가 선악의 기준이며, 자기 혹은 신의 객관적인 원리에 입각한 기준은 자아의 가치판단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융 저작번역위원회(역) (2004b): 《융 기본저작집 9》, 인간과 문화, “심리학 적 관점에서 본 양심”, “분석심리학에서의 선과 악”, 솔, 서울 참고.

편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단테의 시대상과 《신곡》의 지옥편의 구조

먼저 《신곡》을 이해하기 위해 단테가 살았던 13세기부터 14세기까지의 역사적 시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시기는 중세의 정점을 지나 르네상스로 가는 전환기였다. 이전 세기는 초월적인 것에 전적으로 관심을 두었다면, 인간과 자연의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하였다. “신은 누구신가?”에서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극단적인 내향성에서 외향성으로 점진적인 전환이 일어나던 시기였다. 또한 정치, 사회적으로 제국이 분열하였고, 도시국가(다양한 정부형태가 발생하였다)들이 부상하면서, 유럽 민족 사이에 분화가 시작되었다. 또한 200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¹⁹⁾으로 교황의 권력이 쇠퇴하면서, 국가 권력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다양한 지방자치 도시들은 황제파(기벨리니)과 교황파(구엘프)와 동맹을 맺으며 대립하는 리그에 가담하였다.

이런 첨예한 대립의 중심에 단테의 주무대였던 이탈리아 피렌체가 있었다. 아노르강 하류에 위치한 피렌체는 물이 풍부하고, 교통이 발달하여 면직, 모피 사업,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다. 단테의 시대에 80개의 은행이 있었고, 피렌체의 화폐인 피오리노(Fiorino) 금화는 유럽의 공식 화폐로 인정되기까지 했다.²⁰⁾ 이런 과정에서 축적된 부로 신흥 지주과 봉건 영주 간의 갈등도 야기되었다. 자연스럽게 시민 생활의 부흥이 일어났고, 배움과 개인적 자질을 함양하는 주체적인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한마디로 인문주의와 르네상스의 배아의 시기였다.²¹⁾

19) 10세기 이래로 이슬람 투르크족의 세력이 확장되었고, 이는 비잔틴 제국을 압박하고 예루살렘 순례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비잔틴 제국 황제 알렉시우스 1세가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1095년 유럽군주와 제후들에게 십자군을 호소하였다. 그 결과 1096년 1차 십자군이 조직되어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8차례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다. 1차 십자군 전쟁만 성공하였고 나머지 전쟁은 패배하였고, 1291년 십자군 팔레스타인 마지막 기독교 도시인 아콘이 이집트 공격으로 함락되면서 전쟁의 막이 내린다.

20) 당시에는 교황이나 황제상이 주조된 화폐가 주로 사용되었지만, 피렌체는 성 요한과 백합 장식이 주조된 피오리노 금화가 공식화폐로 인정받았다.

21) Mazzarella A, 김덕규(역) (2021): 《단테와 용 1, 신곡의 분석심리학적 이해: 지옥편》, 융심리학 연구소, 서울, pp40-41.

신곡의 지옥편을 쓸 당시에 단테의 삶은 대단히 고통스러웠다.²²⁾ 단테는 그의 시대에 가장 학식 있는 학자이자 문학가로서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열정적으로 사회 정치에 참여하여 도시의 복지를 위해 싸웠던 사람이었다. 피렌체의 100인의 평의회원이었고, 여러 도시들의 대사로서 활동하였다. 그는 ‘거대한 폭군(부패한 교회)’에 대항하여 자치 도시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힘썼다. 1301년 10월에 교황 보나파키우스 8세(Pope Boniface VIII)의 대사관으로 파견되어 피렌체의 자치권의 정당성을 변호하였다. 교황은 단테를 구금하였고, 발루아의 샤를(Charles of Valois)을 급파하여 흑당은 백당을 탄압하고, 단테의 고향은 약탈당했다. 1302년 1월, 단테는 사기, 강탈, 음모 혐의로 기소되어 공직에 박탈당하고, 추방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1302년 3월에 열린 후속 재판에서 모든 재산이 몰수당하고, 피렌체에서 체포될 시 화형 선고가 내려졌다. 그때부터 단테의 망명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는 추방과 유랑생활의 커다란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추방이 가져온 갑작스러운 가난… 무기도, 한 마리 말도 없이, 그것은 나를 어두운 감옥으로 몰아넣었고,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일으키려해도, 무자비한 가난이 나를 짓누르려 합니다[로메나 백작(Conti di Romena)에게 보내는 서간문 II, 3].

진실로 나는 뜻도 없고 방향타도 없는 배였고, 비통한 가난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에 의해 갖가지 항구들과 해안들과 피난처들로 향하는 배였다… 그녀의 언어(글자 그대로 이탈리아어)가 구사되는 거의 모든 곳을 거치면서, 나는 운명의 여신이 주는 상처에 반하는 나의 의지를 내보이며, 순례자로, 거의 거지같이 헤매었다[향연 1, 3].

망명 생활 중에도 그는 망명 지도자로 활동하였고, 《속어론》과 《향연》을 집필하였고, 1304년에 지옥편을 구상하여, 1306-1309년 집필을 마무리하였다. 신곡은 한 천재의 지식과 경험이 지옥, 연옥 천국의 모든 이미지로 치장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내용이 의식적 산물로 환원될 수만은 없다. 예술가

22) 본 소고에서는 단테의 개인사에 대한 자료들을 모두 기술하지 않고, 보다 깊은 내용은 Mazzarella A, 김덕규(역)(2021): 앞의 책, pp42-61을 참고하라. 신곡의 작품과 연보에 대한 간략하고 명쾌한 해설은 Alighieri Dante, 박상진(역)(2017): 《신곡, 천국편-단테 알리기에리이 코메디아》, 민음사, 서울, pp348-373을 참고하라.

는 작품을 창조하는 자임과 동시에 작품의 도구이며, 이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단테에게 신곡의 내용은 환상작업을 통해 나타나는 집단적 무의식의 이미지에 상응한다. 융은 이와 관련하여 “심리학과 시”(Psychology and Poetry)²³⁾에서 환상작업에 관한 진술을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한다.

[환상작업에서] …예술적 표현을 위한 소재를 제공하는 경험은 더 이상 친숙하지 않다. 마치 인류 이전의 심연으로부터 또는 빛과 어둠이 대조하는 초인의 세계로부터 나타난 것처럼 인간 마음의 배후지에서 그 존재가 비로되는데 닮았다.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고 인간의 약함으로 쉽게 굴복할 수도 있는 원초적 경험이다. 바로 그 경험의 거대함은 그것에게 가치와 더불어 엄청나게 충격적인 영향을 준다. …원초적인 경험은 질서 있는 세계의 그림이 그려진 장막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는다… 우리는 포이만드레(Poimander), 헤르마스의 목자, 단테, 파우스트의 두 번째 부분에서 그런 환상을 발견한다… 단테와 바그너는 이 일을 다소 쉽게 해냈다. 역사적이거나 신화적 사건들의 망토 속에 환상 경험을 위장함으로써… 그러면 그것은 진짜 주제-사건이라고 잘못 받아들여진다. 두 경우 모두에서 작품의 강력한 힘과 더 깊은 의미는 역사적 또는 신화적 자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표현하기 위해 이바지하는 환상 경험 안에 있다 [paras.141-143].

이 증거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술작품 안에서.. 환상이 인간의 열정보다 더 깊고 더 인상적인 경험을 대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성격의 예술 작품들에서… 환상이 진정한 원초적 경험… 진정한 상징, 즉 실제이지만 미지의 어떤 것에 대한 표현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para.148].

따라서 환상에서 나타난 것은 집단적 무의식의 이미지이다. 이것은 의식의 모체이고 고유의 타고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집단적 무의식의 표현은 의식적 태도에 보상적이다. 따라서 제기되는 질문은 이것이다. 즉 그것은 그의(예술가) 시대에 대한 의식적 전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단테의 명성 또한 불멸이다… 시인이나 선견자는 자신의 시대의 무언의 욕망에 표현을 빌려주고, 이런 맹목적인 필요성이 선 혹은 악을 초래하든, 한 시대의 구원 혹은 파괴를 초래하

23) Jung CG (1971): *The Spirit in Man, Art, and Literature*, “On the Relation of Analytical Psychology to Poetry and Psychology and literature” CW 15,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s.97-172.

든 상관없이 말이나 행위로 성취에 이르는 길을 보여준다[para.152].

융은 “예술작품의 해석은 각 개인에 달려 있음을 말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예술 작품이 예술가를 형성한 것처럼 우리를 형성하도록 해야 하고, 그러면 우리 또한 그 원초적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다. 예술 작품은 집단적인 것의 삶이며, 그렇기에 모든 위대한 예술작품은 객관적이고, 비개인적이지만 심오한 감동을 준다”²⁴⁾고 언급한다.

단테는 ‘타락’ 이후 지상 낙원의 상징적 이미지이자 지상적 현현의 극인 예루살렘에서 출발한다.²⁵⁾ 그는 지옥의 현관과 구덩이의 9개 고리들(9개 고리들+현관=10)을 통해 하강한다. 그는 루시퍼를 발견한 땅의 중심에 다다른다. 이곳은 하강이 상승으로 변환되는 신비로운 과정인 방향전환(metanoia)의 지점이다. ‘숨겨진 통로(바위의 갈라진 틈)’를 거치면서, 그는 연옥의 강가로 올라간다. 그런 후 그는 강가, 2개의 높은 바위의 전연옥(Ante-Purgatory)과 7개의 바위 난간(cornices)을 횡단한다(7+3=10).²⁶⁾ 연옥산의 꼭대기는 단테가 지상 낙원을 배치한 곳이며, 형태상 원이다. 여기 그 땅에서 단 하나의 원천으로부터 두 강인, 망각의 강으로 죄의 기억을 씻는 레테(Lethe)와 선의 역할을 살려내는 에우노에(Eunoe)가 흐른다. 레테 강에서의 세례 의식과 에우노에 강물에서의 침례 후 그 과정의 나머지 불순물은 연금술적으로 씻겨 나가고, 단테는 “순수해지고 별들을 향해 오를 준비”가 된다. 다음으로 시인은-마치 별들이 불타는 사다리를 형성한 것처럼-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7개의 행성 하늘들인 월광천, 수성천, 금성천, 태양천, 화성천, 목성천, 토성천을 오른다. 그런 후에 그는 항성천(Starry Heaven), 원동천(Primum Mobile) 혹은 수정천(Chrystalline Heaven)인 제9천을 지나서, 마침내 지고천(Empyrean), 제10천에 도달한다(7+3=10의 또 다른 경우). 점성술적 하늘이 끝나고 단테가 지구를 마지막으로 힐끗 응시한 원동천에서 그는 베아트리체의 눈에 반영된 강렬한 광채의 지점을 직감한다. 이어서 그가 방금 전에 감지한 빛의 핵심 주위를 회전하는 대단히 아름다운 배열인 9개의 천사 합창단의 출현이 뒤따른다(9+1=10). 이 광채

24) Jung CG (1971): 앞의 책, CW 15, paras.161-162.

25) 전체 신곡의 세 세계에 대한 개략적 설명은 Mazzarella A, 김택규(역) (2021): 앞의 책, pp96-98 참고.

26) 이에 대한 이해는 Mazzarella A, 김택규(역) (2021): 앞의 책, p88-95에 있는 그림과 내용을 참고하라.

의 지점과 천국의 순백의 장미는 더 이상 점성술적 태양으로부터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신 자신으로부터 발하는 순수한 빛의 천국인 지고천에 위치한다.

이런 면에서 단테의 여정은 인간이 더 이상 움직임의 주체가 아닌 우주의 정신적 축을 따라 펼쳐진다. 지표면에서 지구의 중심까지의 수직 이동은 지옥의 영역으로의 하강에 해당한다. 지구의 중심은 모든 무거운 힘이 그곳으로 수렴 하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가장 낮은 지점이다. 바로 그 너머에서 상승은 반대 방향에서 시작하여, 결국 출발지점과 반대 방향에서 나타난다. 루시퍼와 동시에 일어난 방향전환의 결과로서 지옥의 9개 고리는 9개 하늘의 반영으로 반전된다.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고리들은 이 둘 모두가 상징하는 동일한 원형적 예시의 두 측면, 즉 하나는 빛, 다른 하나는 어둠으로 구성된다(이는 헤르메스주의가 일곱 행성들에서 인식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하늘들의 ‘각인’이 그 자체로 원형 또는 본능을 대변한다면, 용이 명명한 대로,²⁷⁾ 본능은 물질-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부분-에서 역동적인 효과로 발견되는 반면에, 원형은 하늘에서 관념적이고 영적인 이미지로 발견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단테의 우주 구조는 정신의 양극성(지옥-천국)을 분명히 드러낸다. 두 극은 알려지지 않은 힘에 의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중간 단계(연옥)는 제한된 영역에서 “하늘의 돌봄 속에 있지 않는” 한 정신에게 맡겨진 선택의 자유, 의도와 자유의지를 실행하는 인간이 겪는 전형적인 과정으로 제공된다.

단테의 지옥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크게 전지옥과 9개 지옥의 고리를 통과하는 여정이다. 어두운 숲을 지나고 지옥문을 통과하여 10개의 지옥의 영역을 통과하는 길이다. 지옥의 특성은 지옥에 거주하는 여러 형상들을 통하여 나타난다. 이는 숲에서 만난 세 동물의 표범과 사자, 암늑대로 표현된다. 지옥은 인간이 짐승의 파괴적인 본능적 측면에 동일시하고, 사로잡힐 때 갇히는 감옥의 상태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어두운 숲과 세 짐승

신곡의 지옥편은 어두운 숲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별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27) Jung CG (1969): “On the Nature of the Psyche”, CW 8,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s.367, 383-384.

연옥편의 시작은 작은 배로 뜻을 달아 정화를 위한 산의 오름으로 시작하여 별 이야기로 끝나고, 이어서 천국편은 하늘의 영광으로 시작하여 전체 별을 움직이는 사랑으로 갈무리된다. 민담의 해석이나 꿈 분석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의 지점과 궁극적으로 무의식이 요구하는 결말과 해결을 시사하는 첫 시작과 끝 부분임을 고려할 때, 신곡의 전체요지가 세 개의 세계의 첫 시작과 끝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옥편의 첫 배경과 이미지는 숲이다.²⁸⁾

“인생 여정의 반 고비”는 전반기 인생, 즉 젊음의 열정이 끝나고 내면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후반기 인생의 시작점이며, 존재의 목적에 스스로 질문해야 하는 내려감의 여정을 가리킨다. 어두운 숲에 빠져 길을 잃어버리는 경험은 인생의 특정 시점에서 자아의 계획과 환상, 집단적 모델이 혼란에 빠지고, 구축했던 토대가 의미를 상실할 때 일어난다. 문명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를 통상적으로 ‘격변과 위기의 시기’라 부른다. 이는 연금술의 니그레도(nigredo), 즉 흑화의 과정으로 원질료의 혼돈과 암흑, 죽음과 해체에 해당한다. 방향 상실과 무의미를 초래하는 숲은 개인과 집단에게 위기의 시공간이자 정신적 상태를 표상한다. 단테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쌓아온 모든 이력, 가족과의 분리, 정치없이 배회해야 하는 지독한 외로움을 견디어야 했다. 이는 인생의 중반기에 자신의 페르조나가 발가벗겨지는 심적 고통에 상응한다. 인생의 중반기에 일어나는 갑작스런 질병, 실직, 신체변화, 여타 위기는 한 개체를 어둠 속에서 지독하게 헤매게 한다. 이러한 고통은 삶의 기반을 잃고 중력을 잃어버리는 듯한 어둠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단순한 위로나 값싼 처방은 무의미의 숲에 빠진 자에겐 쓸모없다. 길을 잃어버림은 죽음과 삶의 기로의 순간이기 때문이다. 융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혼돈 속에서 길 잃어버림의 파괴적인 영향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비록 우리가 그것이 정신과 인격의 어떤 재생의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²⁹⁾

28) 우리 인생 여정의 반 고비에/나는 어두운 숲에서 나 자신을 다시 찾았고/올바른 길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이 광야의 숲이 야만적이고 완고했는지/얼마나 말하기가 힘들던지!/(그 생각만 해도 나의 옛 두려움이 모두 되살아난다)/쓰디쓴 곳! 죽음도 그보다 덜 쓸 테지만, [지옥편 1곡, 1-7].

29) Jung CG (1993): *Psychology and Alchemy*, C.W.12,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96.

이런 위기의 순간에 무의식의 내용은 더욱 크게 활성화된다. “그 무의식적 내용에 압도될 경우, 편집증이나 정신분열증을 초래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단순하게 믿는 나머지 괴짜 예언자나 유아적인 사람이 되어 공동체에서 배제된다. 또한 개체가 무의식의 내용을 거절하여 페르조나를 퇴행적으로 복원하려고 한다.”³⁰⁾ 단테는 1302년 이후 정치 없는 유랑을 시작한 이후, 1303년 아레초에서 모인 망명자 집회에서 12인 위원회에 선출되고, 지도자로서 활동한 것을 보면, 이전의 페르조나를 복원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숲속에 갇힌 자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객관화하기 전까지 전적으로 무의식적이다. 숲은 생명이 창조되고 사라지는 자연적 어머니의 상으로, 인간 이전의 식물의 상태, 즉 완전히 무의식적 상태를 나타낸다. 그럼에도 숲은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담지하며, 재생과 변환의 상으로 성장하게 하고, 각성시키고 변화시키는 터라 할 수 있다.³¹⁾

단테는 숲을 통과하는 재각성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과 동일시되었던 페르조나와 분리하고 존재의 의식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한다. 단테는 위를 바라보고 산꼭대기에서 비추는 별을 본 후, 무서움이 조금 잠잠해지고, 황량한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때 가파른 길이 막 시작되는 곳에서 세 짐승을 마주친다. 더 넓고 나은 전망을 얻고, 보다 명확한 착상을 형성하기 위해 위로의 상승은 순전히 지적인 방식으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기에 어려움에 직면한다.

첫 번째 단테를 가로막고 선 짐승은 표범이다.³²⁾ 표범은 모호하게 정의된 고양이과 동물로, 완전히 미묘한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표범은 가볍고, 아름답고, 빠르며, 색과 무늬로 더욱 매력적이다. 이는 숲의 한 측면이자 지옥의 특성임을 시사한다. 표범은 “무절제, 또는 육체적인 것에 대한 매력에 굴복하는 것, 행복하고 탐하려는 경향성”이다. 이에 대하여 마짜렐라는 이렇게 진술한다. “매혹적이고 화려한 표범은 대상들, 상황들, 그리고 사람들이 발휘하는 유혹과 매력을 상징할 수 있으며, 이런 유혹과 매력의 모든 명백한 무해함 때문에, 결

30)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역) (2004a): 《융 기본저작집 3》, 인격과 전이, 숲, 서울, p62-64.

31) ‘태모’가 개체의 성장을 가로막고 그 본능 안에 가둘 때 부정적이다.

32) 그 지점 너머 비탈길이 막 시작되는 곳에서/늘씬하고 아주 날랜 표범 한 마리가/점박이 가죽을 뒤집어 쓰고 튀어나왔다/어디를 보든 그 야수는 거기에 있어/내 길을 가로막아 몇 번이나 다시/나는 몸을 돌려 내려가려 했다[지옥편 1곡, 31-36].

국에는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여기서 표범은 무절제한, 즉 혼돈의 조건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끌려 내려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는 ...없이 지낼 수 없어’ 또는 ‘나는 ...에 저항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가! 어떤 이들은 표범을 소심함, 상황에 직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장 쉬운 해결책을 찾으려는 유사한 성향으로 해석했는데, 이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기보다는 투쟁을 포기하고 사건에 수동적으로 항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적 감각의 표현으로서 표범은 원시인과 어린아이들이 세상을 탐험하는 방식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의식을 향해 주저하는 경향을 의미할 수 있다.”³³⁾

두 번째 짐승은 사자이다.³⁴⁾ “사자는 야생적이고 맹렬하게 야만적인 짐승으로서 본능적인 열정을 대변하며, 따라서 악마로 여겨져 왔다. 짐승들의 왕으로서 사자는 엄청난 힘을 나타내는 태양을 상징하며, 만약 이해되고, 길들여지고, 영적인 힘에 봉사하는데 맡겨진다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된다. 이런 이유로 사자는 그리스도와도 연결된다. 이에 대한 한 예가 많은 중세 교회들에서 프로나오스(pronaos)를 지탱하는 사자들에게서 발견되는데, 마치 그런 야수적 힘이 인간의 정신적 본성의 기질에 배치된다면, 전체 종교구조를 지탱할 수도 있음을 입증하는 듯하다. 그렇지만 여기서 사자가 통제되지 않고 야만적인 무의식의 열정에 집어 삼켜지는 진정한 위험을 상징한다.”³⁵⁾ 이런 사자는 폭력성, 통제되지 않는 정서성과 자만심, 그리고 권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감정의 우세함을 대변한다.

세 번째 짐승은 암늑대이다.³⁶⁾ “굶주린 암늑대는 교활함, 기만, 그리고 사기 등과 함께 자아의 이기적인 갈망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욕정에 매혹되고 압도당한 우리는 이기적인 목표를 위해 지성을 사용한다. 우리는 폭력적이 되고, 우리의 지성은 동료들을 속이고 기만하는데 이르러, 더 큰 만족과 쾌락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만다.”³⁷⁾ 지옥에서 암늑대의 영역은 지적인 자만과

33) Mazzarella A, 김덕규(역) (2021): 앞의 책, p131.

34) 그러나 좋은 희망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되살아났으니/사자의 형상이 앞에 나타난 것이다/머리를 바짝 치켜들고 굶주림에 광폭해져/곧장 나를 향해 오고 있는 듯 보였다/그놈을 둘러싼 공기마저 떠는 듯했다[지옥편 1곡, 44-48].

35) Mazzarella A, 김덕규(역) (2021): 앞의 책, p130.

36) 그리고 이제 말라빠진 물골에 온갖 탐욕으로/가득 찬 듯한 암늑대가 가세했다/(그놈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비탄에 빠뜨렸던가!)/이 마지막 짐승을 보고서 나를 사로잡았던 두려움으로/내 영혼이 아래로 무너져 내려/언덕에 오르려는 모든 희망을 잃고 말았다[지옥편 1곡, 49-54].

37) Mazzarella A, 김덕규(역) (2021): 앞의 책, p132.

오만에 속하고, 이 짐승은 사기, 교활함, 권력을 도모하기 위한 반역, 타인에 대한 통제,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을 대변하다.

이 세 짐승들은 숲의 특성이자 지옥에 갇힌 자들의 전형을 나타낸다. 지옥은 표범, 사자, 그리고 암늑대에 의해 속박당하고, 그것들에 사로잡히는 자들의 내면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세 짐승들은 단테가 무시하고 소외시킨 개인적인 본능적 상일 수 있으나, 위대한 예술작품은 시대정신을 표현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중세기까지 기독교 세계가 억압하고 제거해왔던 본능적 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무시무시하고 위협적인 동물상은 의식을 향한 무의식의 반항이며 반란이다. 우리가 종종 꿈에서 동물의 상이 공격적이고 무섭고, 불쾌하게 등장할 때, 그것은 의식의 태도가 본능과 상당히 모순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의식적인 태도가 진정한 본성과 불화하고 있는 사람은 무의식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자연적으로 꿈은 불쾌하고 무서운 형태를 취한다. 왜냐하면 자연은 침해당하면 분노를 취하게 되기 때문이다.”³⁸⁾

집단적인 차원에서 사나운 짐승들이 덮치는 방식은 가치들의 위기로 인해 지배적인 법칙들이 무너졌을 때, 본능적인 힘이 사회 전반에 배회한다. 우리는 아름다운 표범(육체)에 사로잡히거나, 사자(정동)처럼 탐욕스럽고 공격적이 되고, 암늑대(정신)만큼 교활해진다. 오늘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런 본능적 힘의 분출을 목격할 수 있다. 전통과 위대한 종교의 상징이 생생하게 생명력을 발휘할 때는 육체적 쾌락에 대한 탐닉, 지나친 탐욕과 폭력, 혹은 물질주의로 인한 도착으로부터 개인과 사회는 보호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방적 합리성과 과도한 목표지향성과 경쟁적이고 소비지향적 태도는 무의식 속에서 맹렬하게 본능적인 상을 자라게 하였고, 이곳저곳에서 중독적이고, 폭력적이고, 강박적이고 사기적인 그림자의 행동이 분출되고 있다.

조금 다른 구도에서 이런 집단적 현상 중 하나를 예를 들고자 한다. 오늘날 수많은 아동들이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로 진단을 받고 있다. 무엇이 우리의 아이들을 정신적 질환자로 만들고 있는가? 이런 진단받는 아이의 경우, 아동의 언어화와 조직화의 지연으로 초래되는 의식의 미발달로 인한 일시적인 적응부재 현상에 지나치게 꼬리표를 달고 있음을 외면할 수 없다. 엄격한 학교 체계와 도덕적 규범과 인간의 지적 발달을 위해 자율

38) Jung CG (1989): Ibid., CW 14, para.184.

적인 본능을 억압하는 상태는 공격성과 불안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는 정신적 상태를 야기한다. 학교에서 동급생들과의 소외, 따돌림을 막고, 학습 적응을 위해 어찌면 평범한 아동들이 약을 복용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처해 있다. 분명히 개인의 소인과 환경이 이런 병리적 특성을 유발한다. 하지만 과도하게 이름표를 붙인 아이들은 통용될 수 있는 집단적 배려와 사랑보다는 목표와 성취지향적인 집단적 이상에 포로가 된 사회와 집단의 병리 현상의 희생자이다.³⁹⁾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위협은 자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개인과 대중의 정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다.”⁴⁰⁾

단테는 짐승들의 위협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집단적 전통과 정신의 인격화된 형상인 베르길리우스가 등장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집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바로 그때, 우리의 안내자가 나타난다.”⁴¹⁾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에게 지옥 여정의 길잡이가 된다. 단테는 여행을 착수하기로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의심을 극복하고, 길잡이의 도움으로 지옥의 문에 선다.⁴²⁾ 지옥의 문은 여행자에게 위협을 경고한다. 다른 길로 가더라도 무의식성의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단테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지옥의 문을 지나 지옥을 통과한다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조건화하고 감옥에 가두는 육체적,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 상황을 객관화하고 인식하기 위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으로, 즉 우리 정신의 알려지지 않은 영역인 무의식으로 하강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지옥으로의 진입은 개인적이고 원형적인 그림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다. 융은 그림자의 나라인 지옥으로의 진입이 수반하는 공포와 위협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원시적이든 아니든 간에 인류는 항상 그들이 스스로 행하지만 통제하지 못하는 행위의 벼랑 끝에 서 있다… 우리는 오늘날 신들을 ‘요인들’이라 명명한다…

39) 스위스에서 수학할 때, 독일 정신과 의사의 ADHD에 대한 강의에서 교사와 학교, 부모, 치료자, 복지사의 4자가 문제 아이의 정신건강을 위해 학교공동체가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거의 약을 처방하지 않는다는 강의를 들었다.

40) Jaffe A (1989): *Memories, Dreams, Reflections*, Vintage Books, New York, p132.

41) Jung CG (1969): *Psychology and Religion*, CW 11,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21.

42) 나는 길이다, 황폐한 도시로 가는./나는 길이다, 영원한 슬픔으로 가는./나는 길이다, 버림받은 자들에게로 가는[지옥편 3곡, 1-3]. 나는 영원히 남으리라./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지옥편 3곡, 8-9].

의식의 영역에서… 우리 스스로가 ‘요인들’인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그림자의 문을 통해 들어가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요인의 객체라는 것을 공포스럽게 발견한다… 먼저 어두운 심연으로 내려가는 것… 이것은 더 높은 곳에 오르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사려 깊은 인간은 이 심연들 속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피하지만, 대담하지만 경솔한 모험이 가져올 수 있는 유익을 내던져 버리기도 한다… 무의식으로 하강하는 자는 자아중심적 주관성의 질식하는 분위기에 빠지고, 이 맹목의 골목에서 정신의 지하세계의 거대 동굴이 품고 있을거라 추정되는 모든 맹렬한 짐승들의 공격에 노출된다고 통상적으로 믿게 된다.⁴³⁾

여행의 첫 관문인 지옥의 문은 단테의 우주론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한 예루살렘의 동굴과 같은 위치에 있다. 이는 자신을 알고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 지옥의 문을 통과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탄생의 동굴은 지옥의 문과 동일한 재탄생의 드라마의 시작점이다. 이런 지옥으로의 하강은 상승과 재탄생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지옥의 문을 통과하는 첫 시험은 대지의 어둠인 관성과 직면하는 것이므로 대단히 고통스럽다.⁴⁴⁾

세 짐승으로 형태로 나타나는 악의 현상학

이제 세 짐승의 영역, 전체 지옥에서 만나는 대표적인 현상들에 나타나는 그림자 특성과 그림자 측면이 악마화되는 악의 현상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옥에서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본능적 양식으로 출현하는 원형적 상태가 드러난다. 먼저 표범의 영역(무절제)에 속하는 세 번째 지옥의 고리(표범의 영역, 무절제의 영역)에서 케르베루스와 치아코(이탈리아어로 돼지를 뜻함)를 만난다. 케르베루스가 있는 이곳은 탐식가들이 갇혀 있는 형벌의 장소로, 어두운 하늘에서 영원한 비가 내리고 거대한 우박과 구름물이 눈과 뒤섞여 흠뻑 젖은 대지는 악취를 풍긴다. 더럽게 질척거리는 흙에 누워있는 탐식가들을 케르베루스는 갈가리 물어 뜯는다(지옥편 6곡). 부풀어 오른 배에 바닥이 안보이는

43) Jung CG (1980):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CW 9i,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s.42-49.

44) 이는 나태한 자들이 거주하는 관성에 갇힌 전연옥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Mazzarella A, 김덕규(역) (2021): 앞의 책, p180-185를 참고하라.

구덩이를 가진 케르베루스⁴⁵⁾는 이 고리에 빠진 자들의 탐욕을 상징한다. 베르길리우스가 한 주먹의 끈적거리는 흙을 집어 야수의 입에 던질 때, 이 야수는 진정한다. 케르베루스가 진창을 먹고 진정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는 물질적인 탐식의 쾌락과 동일시는 인간을 야수성으로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런 물질적인 탐식으로 야수가 된 인간과 사회를 피렌체에서 경쟁하는 파당들(백당과 흑당)간의 전쟁의 결과를 예언하는 치아코와의 대화(지옥편 6곡 37-75)에서 엿볼 수 있다. 질투와 탐욕에 부풀어진 도시가 피바다가 될 것이고(6곡, 64-66), “오만, 시기, 탐욕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인간을 불타오르게 하는 세 가지 불꽃이오(6곡, 74-75)”라고 노래한다.

케르베루스처럼 악취나는 진창을 먹고 사는 치아코는 물질적 탐욕에 야수로 변한 인간의 전형이다. 또한 탐식가들의 탐욕과 타자를 희생하여 권력, 돈, 개인적인 명성을 집어삼키는데 전념하는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탐욕 사이의 유사성을 드러낸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집어삼키려는 것은 인간을 병리적으로 만들고, 본능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킨다. 알콜 중독에 걸렸던 20대 후반의 한 여성은 술을 먹기 시작하면 인사불성이 되어 집에서 온갖 행패를 부렸다. 알콜과 더불어 그녀의 동반 증상은 폭식증이었다. 술을 먹지 않는 날에는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고 토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먹어도 먹어도 허기가 가지지 않았다. 케르베루스의 텅빈 배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 그녀는 악취나는 진흙을 끝없이 먹어야만 잠잠해지는 케르베루스의 먹잇감이었고, 야수로 변해가고 있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모성 콤플렉스가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특성은 탐욕이다. 이런 탐욕은 물질남용으로 이어진다.⁴⁶⁾ 이는 단테가 케르베루스처럼 악취나는 진창을 먹고 사는 인간의 전형을 치아코, 돼지라고 부른 것과 연결된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중독적 특성과 맞닿아 있다. 끊임없이 침을 흘리며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먹고 있는 것은 악취나는 진창,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임을 인식하기 어렵다. 엄밀히 말해서 이런 중독적 성향은

45) 무자비하고 기이한 짐승 케르베루스는/모두 세 개의 목을 가지고 개처럼 짖어댄다.../부풀어 오른 배, 그놈은 발톱을 가지고 있다./그놈은 영혼들을 찢어발기고, 산산히 망가뜨린다[지옥편 6곡, 13-18]./그의 몸은 경련하는 근육 덩어리였다[지옥편 6곡, 24].

46) 이는 통상적으로 그림자의 내용보다는 모성상 혹은 아니마의 특성으로 고려한다.

개인에게 있어서 실현되지 않은 탐욕이 물질에 투사되고, 본능적 힘은 자아를 집어삼키는 것이다. 집단 안에서 팽창된 자아가 필요 이상을 집어삼키며 영향력을 행사하면, 인간은 비인간적인 착취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인간이 탐욕과 사기에 불을 붙이면, 집단과 민족 간에 집단적 투사가 일어나고 상호 비방으로 공격성을 드러내며 물어뜯기 시작한다. 상대방은 개와 돼지가 되고, 극단으로 치달으면 박멸해야 하는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필요 이상의 많은 정신적 에너지 혹은 물질을 취하려는 태도는 인간과 사회를 본능적 힘에 사로잡히고 집어 삼켜지는 야수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단테는 선함과 정직, 사회적인 인정, 선망의 대상이었던 이들(테기아이오, 파리나타, 루스티쿠치, 아리고, 모스카)이 어디에 있는지 탐욕의 결과로 진창에 누워있는 이들에게 묻는다. 그들 중 하나는 “가장 검은 영혼들과 아래쪽에 누워 있다”고 말한다(6곡 76-87). 이러한 자들은 사자의 영역에서 만난다. 이로써 지옥에 갇힌 자들의 또 다른 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

여섯 번째 고리는 더 낮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디스의 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사자의 영역(폭력)은 붉게 달궈진 철벽으로 둘러싸인 형상이 먼저 나타난다(8곡 67-81). 이 디스의 도시는 악마들과 세 퓨리들(Furies, 복수의 세 여신, 에리니에스 혹은 에리니스)에 의해서 방어되고 있다(9곡 31-45).⁴⁷⁾ 이 지옥의 형태는 폭력적인 열정의 특성이 있음을 배경에서 읽을 수 있다. 이 고리에 빠진 자 중 대표적으로 이단자로 선고받은 파리나타(Farinata Manente degli Uberti)⁴⁸⁾가 있다(10곡 22-54). 파리나타는 영웅이자 애국자이다. 그는 단테의 개인적 원수이고, 가족의 적이지만, 지옥에 갇힌 웅장하고 경멸적인 고귀함을 환기시킨다. 그는 종교적 오류로 인해 고문당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실수가 도시를 해롭게 하여 고문을 당한다. 파리나타의 형상은 단테의 자신의 그림자의 특성과 연결된다. 영웅적이고 용감하지만 지나치게 일방적인 그림자의 측면을 자신 안에서 인식하지 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는 고통당한다. 과도한 선함과 정직함, 절대적 이상의 외양 안에 숨겨진 그림자는 보상으로 더욱 짙어진다.

47) 폭력적인 열정의 불꽃에서 있는 악마들과 복수의 세 여신에 이어 나타나는 메두사에 대한 의미는 Mazzarella A, 김덕규(역) (2021): 앞의 책, p237-244를 참고하라.

48) 피렌체 귀족으로 황제당의 지도자로 교황당을 꺾고 피렌체에 진군했고, 1264년 사망한 후 1283년 종교재판에서 이단자로 선고받았다.

필자는 융학과 분석가 예비과정에서 정신병리학에 관한 시험을 보았던 기억이 난다. 그때 시험의 주심이었던 분석가는 마지막으로 “왜 착한 사람이 병드는가?”라고 질문하였다. 어떤 대답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주심은 선함이 인간을 병들게 한다고 말하였고, 나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다. 일방적으로 선한 도덕적 원리를 가지고 사는 자는 악한 특성을 억제하며 살게 되고, 본능의 침해로 인해 신체 정신 질환에 걸릴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

파리나타의 인간성 혹은 인격은 자기 당파의 대의에 헌신한 영웅적인 위상에 의해 완전히 가려져 있다. 페르조나와의 지나친 동일시와 집단적 신념과 이상과의 동일시는 그림자 혹은 내적 인격(아니마 혹은 아니무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정신적 팽창, 초개인적인 힘을 야기하여 신과 같은 상태로 이끈다. 집단 정신과의 동일시하는 “개혁자, 예언자, 순교자에게 잘 알려진 완화된 과대망상”의 양상이 드러난다.⁴⁹⁾ 집단을 위해 일한 영웅적 행위라 할지라도, 당파적 감정이나 정치적 확신은 상대의 진영과 다른 신념에 대하여 가차 없는 공격과 분노를 분출한다. 융은 종파주의와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가장 큰 장애물들 중의 하나는… 종파주의인데, 그것은 항상 옳고 관용을 내보이지 않으며, 종교의 위치에 스스로 자리 잡고, 길 잃은 양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낙인찍기 위해 가장 신성한 이유를 들어 시비를 일으키고 선동한다… 그러나 어떤 인간존재가 전체주의를 주장할 권리가 있는가? 확실히 이런 주장은 도덕적으로 너무 위험해서 우리는 우리의 동료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 자신이 작은 신들이라고 가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능하신 신께 그것의 완성을 맡기는 것이 나을 것이다.⁵⁰⁾

이 사자의 영역에 갇힌 자들은 정동적인 불로 인한 심판을 받는다. 불타는 모래의 가장 자리, 하늘에서 쏟아지는 끊임없는 화염의 비 아래에서 불에 그을린 물골로 괴로움을 당하는 고리대금업자들이 앉아 있다(16곡 1-90). 고리대금업자들은 신의 창조물(자연)과 인간의 노동의 결실(예술)을 착취하는 자로서 가장 치명적인 형태의 폭력을 대변한다. 단테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런

49)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역) (2004a): 앞의 책, p37-74.

50) Jung CG (1989): *Mysterium Coniunctionis*, CW 14,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448.

권력의 사용을 신성모독적이고 경멸하는 것으로 본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자연을 존중하지 않고, 단지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오염과 공해, 환경파괴는 이런 태도의 결과이며, 생명의 근원인 자연이 죽음의 원인으로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 19 판데믹은 이를 잔인하게 증명하였다. 또한 인간은 노동에 있어서 인간 동료를 착취한 결과, 자본을 확대 재생산하며,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는 현대사회에 드리워진 치명적인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물질에 대한 불타는 욕망에 소비된 자들은 불의 비에서 심판을 받는다. 무절제한 탐욕의 폭력적인 얼굴인 고리대금업자들은 폭력과 사기의 경계선을 넘나든다.

폭력적인 정동성(사자)의 영역을 지나서, 암늑대의 영역을 지나가야 한다. 암-늑대는 표범과 사자의 합성인데, 이 영역에서 사기, 교활함, 이기적인 목적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기적인 정신을 대변하는 괴물과 암늑대의 특성에 사로잡힌 형상들을 마주친다. 게리온(Geryon)⁵¹⁾은 그 대표적인 형상이다. 베르길리우스와 단테는 깊은 구렁에서 게리온을 끌어내기 위해 끈을 말아서 그 구렁으로 던진다(지옥편 16곡, 106-114). 주석가들은 이 끈을 성 프란체스코의 서약으로 겸손, 청빈과 부의 포기로 간주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끈은 이탈리아어로 굴레, 밧줄을 의미하는 ‘카페스트로’(capestro)로서 표범을 길들이는데 도움을 주는 입문식의 형식을 암시할 수 있다. 이 끈은 모든 선한 의도와 결심, 선한 빛으로 나타나고자 하는 욕망을 대변한다.⁵²⁾ 그런데 이런 끈을 몸에서 풀어서 제거한 후, 돌돌 말아서 사기의 화신인 게리온이 있는 깊은 구렁으로 던진다. 이것은 오직 선함 뒤에 혹은 그 깊은 아래 어둠에는 사기의 괴물이 숨겨져 있음을 시사한다. 끈에 의해 소환된 게리온은 정신의 양면성을 드러낸다.⁵³⁾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정직한 사람(선함)의 얼굴로 외양을 하고 있지만, 그 몸통은 뱀이며, 다양한 색조의 피부는 표범, 발은 폭력성의 사자이다. 아름다운 서약과 선함의 끈은 효과적으로 본능을 대응하고 정신화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의지만으로 본능을 억압하고 잘라버릴 수 있다

51)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머리는 사람, 몸은 뱀, 발은 사자의 형상을 한 괴물로 삼위일체에 대응하는 죄악의 속성으로 고려되었다.

52) Mazzarella A, 김덕규(역) (2021): 앞의 책, p273.

53) 그의 얼굴은 정직한 사람의 얼굴이었고/그런 축복의 눈길로 빛났다./나머지 몸통은 뱀이었다./그의 발톱이 달린 앞발은 겨드랑이까지 털이 무성했고,/그의 등과 배와 양 옆구리는/아라베스크 무늬와 소용돌이 모양으로 칠해졌다[지옥편 17곡, 10-15].

는 것은 착각이다. 아름답고 선한 빛의 또 다른 대극에는 게리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융은 《현자의 장미원》(Rosarium Philosophorum)의 세 번째 그림, ‘별거벗은 진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상황이 인습적인 피복을 벗어 던졌고 거짓된 너울과 그 밖의 미화 수단 없이 진실과의 대결을 형상화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가 있는 그대로의 인간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전에 인습적인 적응 가면 밑에 숨어 있던 것, 즉 그림자를 보여준다. 그림자는 의식화로써 자아가 통합되며, 그래서 전체성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전체성은 완전성이 아니고 원만성이다. 그림자의 동화를 통하여 인간은 어느 정도 신체적인 것이 된다. 그래서 그의 동물적인 총동양식이나 원시적이거나 고태적인 정신이 의식의 탐조 범위로 들어오며 더 이상 허구나 착각의 도움으로 억압되지 않게 된다. …무의식으로의 억압은 정지 상태는 아니지만 일방적 발전으로 유도함으로써 결국 신경증적 해리에 이르게 한다.⁵⁴⁾

인습적이고, 도덕적인, 교리적 선한 겉모습 뒤에 있는 무의식적 본능을 일방적으로 억압하려 한다면, 개인은 신경증적 해리를 경험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집단적으로 서구 문명은 제 3세계에 자선과 원조를 제공하는 거짓된 선을 가장하며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전통적 가치와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자행하였다. 이는 사기치는 게리온의 괴물과 흡사하다. 이 괴물 게리온, 고태적인 사기적인 정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신은 자연 질서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만약 그것이 균형을 잃게 되면, 자신의 창조물까지도 파괴한다. 따라서 정신의 요소들에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균형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인간 공동체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파괴적인 성향이 쉽게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원자 폭탄이 지금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물리적 집단 말살의 수단이라면, 잘못된 인도된 정신의 발달은 심혼의 집단적 황폐화를 일으킨다.⁵⁵⁾

융은 위에 언급한 그림자의 의식화와 관련하여 이어서 말한다. “오늘날 우리

54)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역) (2004a): 《융 기본저작집 3》, 인격과 전이, 숲, 서울, p257.

55)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역) (2002): 《융 기본저작집 2》, 원형과 무의식, 숲, 서울, p90.

의 물음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나의 그림자를 떨쳐버릴 수 있는가’에 있지 않다. …‘그림자로 인한 불행한 사태가 생겨나지 않게 하면서 인간은 어떻게 그림자와 함께 살 수 있는가’라고-그림자를 인정하면 겸손해질 수 있는 토대라 마련되며, 심지어 헤아릴 수 없는 인간 본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게 한다. … 자기의 그림자를 알고 있는 자는 그가 해롭지 않은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림자와 더불어 고대적 정신, 원형적 세계 전체가 의식과 직접 접촉하여 이를 고대적 영향과 함께 휩쓸기 때문이다.” 그림자와 그림자가 할 수 있는 커다란 악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다.

베르길리우스는 즉각적으로 사기치는 정신을 인식하고 그것에 올라탄다. “나의 안내자가 벌써 그 사나운 짐승의 등에/올라타 있는 걸 발견했다./그가 말했다. “이제 강하고 대답해져라!/지금부터 우리는 이놈을 계단 삼아 내려가야 한다./앞에 타라. 나는 뒤에 타겠다./너와 위협스런 꼬리 사이에 있을게다.” [지옥편 17곡, 79-84] 이 구절들에서 이런 파괴적이고 강력한 짐승이 만약 길들여진다면(계단 삼아), 이는 인간의 이행을 돕는 수단과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무의식의 그림자를 인식할 때에만, 어둠의 밑바닥으로 하강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빛을 향해 올라가게 한다. 단테의 지옥의 여정에서 세 짐승들을 마주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통적인 정신이며 안내하는 정신을 대변하는 베르길리우스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기적인 정신으로부터 보호하며 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조명된 정신, 분화된 로고스를 필요로 한다.

여덟번째 고리는 동심원처럼 10개의 도량인 불기아로 구성된 말레볼제로 이루어져 있다. 밖에서 볼 때 구덩이 중심을 향해 안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인들이 배꼽 아래 부분이 웅덩이에 잠긴 채 거대한 탑처럼 우뚝 솟아 있다(31곡 31-57). 여기에서 지옥에 갇힌 거인들을 만난다. “거인들은 미분화되고 원시적인 인간의 전의식적인 상태와 본성의 거친 에너지와 연관되어 있다. 격렬한 정동과 거인증 사이에는 분명한 관계가 있다. 이런 거인의 측면은 집단적 무의식의 정동의 힘의 분출과 관계가 있고, 이는 인간을 팽창적 상태에 빠지게 한다. 이런 거인은 불과 얼음과 연루되며, 인간을 불 혹은 얼음, 둘로 변하게 한다.”⁵⁶⁾ 지옥편에서 거인이 얼어붙은 코키토스 호수와 연결됨은 거인의 악마적이고

56) Von Franz ML, 이부영, 이광자(역) (2021): 앞의 책, pp294-295.

차가운 지성과 연관되는 듯하다. 시인은 “왜냐하면 지성의 능력이/잔혹한 힘과 사악한 의지와 결합할 때,/아무도 그런 동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지옥편 31곡, 55-57)”라고 노래한다. 지성의 능력이 폭력과 사악한 의지와 결합할 때는 맹목의 힘으로 고태적 정서의 불가해한 덩어리(군중)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개인의 차원에서 강한 정동에 휩싸이면 인간은 한도를 잃고 부풀어진다. 그런데 이런 거인의 힘의 분출은 집단운동에서 더욱 강력하게 드러난다. 이런 집단운동에서 군중은 신념과 이상을 추종하며 가히 종교적 특성을 결부된 원형적 힘에 매료된다. 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나치와 좌파와 우파의 모든 운동에서 발견할 수 있다. 집단의 투사를 받은 사악한 지도자는 사람들의 순진함 앞에 원형적인 이상을 두고 선전한다. 군중은 상징에 사로잡히면 광신주의를 위한 준비태세를 한다. 이런 조건은 개인과 모든 민족에게 필연적으로 정신병적 폭발을 초래한다. 인간의 특정 크기를 초과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무의식에 똑같이 비인간적인 힘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지옥의 가장 비극적인 부분에서 악마로 변하는 동안에도, “먹고 마시고 자고 옷을 입는” 살아있으면서 지옥에 떨어진 자들 중에서 한 명을 제시한다.⁵⁷⁾ 브란카 도리아(Branca D’Oria)는 제노바의 귀족으로 미켈레 찬케의 사위였고, 장인을 연회에 초대하여 초대하여 살해하였다. 단테의 시대는 국가와 가족을 배신하여 셀 수 없는 살인으로 물들었다. 악마는 차갑고 사기적인 정신에 사로잡혀 배신으로 살인과 폭력을 일삼는 자의 영혼을 차지하고 지옥의 차가운 얼음에 결박한다. 이것은 악에게 자신을 내어준 인간은 이미 악마이고, 바로 그 순간 얼음에 빠진다. 이것은 자기의 절대적인 내면 법칙을 거스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악마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일러준다.

그렇다면 소우주로서 인간이 악마적인 것의 개념 안에 포함될 것이고, 심리학

57) ...내가 말해주겠소./내가 그러했듯 영혼이 육체를 배신할 때마다./악마가 육신을 차지한답니다./...영혼이 여기 이 웅덩이에 곧장 빠져 있지만/내 바로 뒤에서 겨울을 나는 망령이/그의 육체를 지상에 잘 두었을 수 있다오./하지만 당신이 거기서 방금 왔다면, 당신은 알아야만 하오./그는 브란카 도리아 경이시오./그가 여기 얼음에 갇힌 지 많은 세월이 흘렀소.”/내가 말했다. “내 생각에 당신은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소.”/“브란카 도리아는 전혀 죽지 않았소./그는 먹고 마시고 자고 옷을 입고 있지요.”/“그가 말하길, “위에 역청이 달라붙고, 끓는 도랑./말레브란케의 도랑을 보시오.”/미켈레 찬케의 영혼을 아직 붙잡지 않았소./브란카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몸에 악마를 두었고, 그의 가까운 친족도 그러했고,/이 배반 행위의 공범자였소[지옥편 33곡, 121-147]

적으로 이것은 신으로부터 분리되고 갈라져 나온 자아가 자아중심성에 의해 신에 대한 독립성을 강조하자마자 악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기의 신성한 역동성은 우주의 역동성과 동일한데, 그렇다면 자기의 신성한 역동성은 자아를 섬기는데 배치되고, 자아는 악마화된다. 이는 부르크하르트(Burckhardt)가 ‘위대한 악탈자’라고 불렀던 역사적 인물들에서 발견하는 마술적으로 효과적인 인격을 설명할 것이다. 그 본보기들은 가증스럽다(Exempla sunt odiosa).⁵⁸⁾

지옥이란 먼 미래로 투사된 심판의 공간이나 영역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숨어 있는 악에 굴복하고 먹잇감으로 전락할 때 간혀버리는 ‘상태’이다. 인간의 악마화를 초래하는 자아 거대증과 자아 중심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 악마는 개인을 신경증으로 몰아넣을 것이고, 집단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폭력이 자행될 것이다.

나오는 말

단테는 700여년 전에 신곡의 지옥편을 통하여 어둠의 나라에 갇힌 그림자를 용기있게 마주하고 인식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 코로나 판데믹 이후, 우리는 우리 뒤에 있는 그림자에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되는 엄중한 과제를 요청받고 있다. 전체주의를 표방한 국가들이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부와 안녕을 보장하는 지상낙원에 대한 기치를 들고 대중의 무의식적 이상을 투사받아, 이를 가슴과 등에 메고 더욱 세계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나의 분석가인 한수엘리 에터 박사와의 분석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너와 내 안에 푸틴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최악의 위험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킬 수 없고, 우리의 문명은 무자비한 힘을 행사하는 신의 전능성을 가지고 폭력을 자행하는 악마화된 지성과 지도자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궁정화가였던 프란시스코 고야(Francisco de Goya, 1748-1828)가 1807년 프랑스 나폴레옹의 침입으로 ‘반도 전쟁’의 참상을 경험하면서 그린 그림, ‘거인’(1808-1812)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그림 하단 왼쪽 부분에는

58) Jung CG (1983): *Alchemical Studies*, CW 13,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372, note 5.

사람들이 검은 형체에 쫓기며 도망가고 있고, 오른쪽에는 소들이 달아나고 있다. 산 위에 구름 뒤에 벌거벗은 거인이 하나 서 있다. 등을 진 거인은 권투 선수처럼 손을 들고 싸우려는 듯 자세를 취하고 있고, 얼굴은 눈을 감은 듯 옆모습이 그려져 있다. 거대한 맹목의 거인은 거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무자비한 집단적 권력인 나폴레옹 군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화가 자신과 고통당하는 대중의 심층에서 솟아나는 파괴적이고 팽창적 충동일 수 있다. 이 맹목의 거인의 원시적 폭력성은 밖에도 안에도 자리 잡고 있음을 묘사하는 듯하다. 고야의 판화집 <번덕>에는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눈을 뜬다”는 글귀가 있다.⁵⁹⁾ 이 말을 다음과 같이 바꾸고자 한다.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면 팽창된 맹목의 괴물이 깨어난다”

참 고 문 헌

- 이부영 (2000): 《우리 마음 속의 어두운 반려자, 그림자》, 한길사, 서울.
- 이원울 (2021): 《하룻밤 미술관》, 다산북스, 서울.
- Alighieri Dante, 박상진(역) (2017): 《신곡, 지옥편-단테 알리기에리이 코메디아》, 민음사, 서울.
- _____ (2017): 《신곡, 천국편-단테 알리기에리이 코메디아》, 민음사, 서울.
-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역) (2002): 《융 기본저작집 2》, 월현과 무의식, 솔, 서울.
- _____ (2004a): 《융 기본저작집 3》, 인격과 전이, 솔, 서울.
- _____ (2004b): 《융 기본저작집 9》, 인간과 문화, 솔, 서울.
- Jaffe A (1989): *Memories, Dreams, Reflections*, Vintage Books, New York.
- Jung CG (1969):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Psyche*, CW 8,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80):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CW 9i,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78): *Aion*, CW 9ii,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70): *Civilization in Transition*, CW 10,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69): *Psychology and Religion*, CW 11,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93): *Psychology and Alchemy*, CW 12,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83): *Alchemical Studies*, CW 13,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59) 이원울 (2021): 《하룻밤 미술관》, 다산북스, 서울, 6장 고야편 참고.

_____ (1989): *Mysterium Coniunctionis*, CW 14,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_____ (1971): *The Spirit in Man, Art, and Literature*, CW 15,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_____ (1984): *Dream Analys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Mazzarella A, 김덕규(역) (2021): 《단테와 융 1, 신곡의 분석심리학적 이해: 지옥편》, 융심리학연구소, 서울.

Sanford JA, 심상영(역) (2003): 《융학과 정신분석가가 본 악》, 심층목회연구원출판부, 강릉.

Von Franz ML, 이부영, 이광자(역) (2021): 《민담 속의 그림자와 악》, 한국융연구원, 서울.

Shim-Sŏng Yŏn-Gu 2022, 37 : 2

〈ABSTRACT〉

Shadows and Evil in Inferno of Divine Comedy

Dukkyu Kim, Th.M.*

This study is to illuminate the problem of shadows and evil appearing in contemporary events in the midst of a period of upheaval through Inferno of Divine Comedy. First, the concept of shadow and evil were briefly summarized in analytical psychology and discussed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the concepts with the empirical aspect of relativity and ethics in the field of psychotherapy.

The 14th century, the age of Dante, was the embryonic period of the Renaissance beyond the end of the Middle Ages. It was when Dante, who was writing Divine Comedy, had to take off his persona forcibly and live in exile. In a nutshell, it was a transition period for both the individual and the collective. The dark forest is a nigredo, darkness and chaos we face in this transition, but it can be a place of transformation and rebirth. The three beasts (leopard, lion, and she-wolf) encountered in the forest can be considered as the instinctual images that Dante ignored and alienated, which the medieval Christian world had suppressed and eliminated. Especially at the collective level, as destructive instincts, ferocious beasts roam throughout society when a crisis breaks dominant laws of values.

The three beasts of *Inferno* appear as phenomena of shadows and evil. The aspect of leopard was explored Cerberus and Chiaco(pig) as a symbol of greed, and the lion, Farinata as the form of violent passion. The aspect of the she-wolf was examined as Geryon, a deceitful monster with a beast nature hidden behind goodness, the giants in the frozen lake of Cocytus, and Branca D'Oria, who betrayed and murdered the country and family. *Inferno* reveals the "state" of being trapped when one yields to the evil hidden within oneself and falls into prey.

KEYWORDS : Shadow; Evil; Divine comedy; Inferno; Leopard; Lion; She-wolf.

*The Center for Jungian Psychology, Seoul, Korea